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메릭 및 호프스트라 대학교에서 발견된 반유대주의 낙서에 관한 CUOMO 주지사 성명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메릭의 민간 소유 부동산을 비롯해 호프스트라 대학(Hofstra University) 내 두 곳에서 발견된 반유대주의 그래티피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진 후 다음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메릭과 호프스트라 대학교에서 이런 가증스러운 혐오 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대인 지역사회는 뉴욕 가족의 일부이며, 우리 주정부는 반유대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와 호프스트라 지역사회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Hate Crimes Task Force)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지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세기 최악의 보건 위기 속에서 이제 그 어느 때 보다 우리는 단합하여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증오를 이겨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